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지역사회시니어클럽(Community Senior Club) 추진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지역사회시니어클럽(Community Senior Club: 노인 자활후견기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전인구의 7%를 넘는 노인들과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50세 이상 연령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욕구를 감안하여 동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동 사업을 통하여 노인들의 경륜을 봉사 및 소득사업에 발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3월 14일 15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노인들의 생활에 활력을 주고 경륜을 사회에 환원시키며, 본격적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노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노인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점에서 기존의 노인대상 정책사업과 차이가 있다. 주요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추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5세 이상의 노인과 50세 이상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을 구성하여 자활후견기관 지원사업형태로 운영하되, 저소득층 노인뿐 아니라 일반노인들도 참여하도록 함.

- 금년도의 경우 3~5개 정도의 시니어클럽을 구성하여 시범실시하고, 각 안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향후 시·도별 1~2개 규모(30개소)로 확대 실시할 계획임. 금년도 시범사업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이용 노인, 종교단체 신도, 직능 단체 퇴직 노인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은 자체 사업계획에 의하여 노인들의 경륜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으나, 몇 가지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가정문제, 고부갈등, 교육, 세무, 환경 등 전문상담사업
- 환경보호, 방범, 청소년선도 등을 위한 교육, 강연, 상담사업 등 자원봉사활동
- 경비, 주차관리, 건물관리, 운전 등 종합용역서비스 제공
- 아이돌보기(영아, 저학년 아동), 환자돌보기, 시간제 도우미, 가정 단기 일손공급 사업 등 가사서비스 제공
- 자립형(up-grade) 자활근로사업
- 지역사회 수요에 따른 각종 교육 및 자영업 자문(컴퓨터교육, 전원형사업 교육, 소호형 비즈니스 자문 등)

개방병원 활성화방안 추진

보건복지부는 일반개원의사가 종합병원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환자를 지속적으로 진료하는 개방병원(Attending System)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년 12월까지 개방병원 활성화사업 「시범기관」을 운영하고, 개방병원을 활성화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일부 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3월중에 각 시·도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종합병원이나 병원을 개방병원 활성화사업 「시범기관」으로 지정하며, 지정된 시범기관은 개방병원 활성화사업 「시범기관」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2002년도 의료인력 배치시 인턴 또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1인을 추가로 배정하게 되며, 시범기관중 도·농통합지역내의 국공립의료기관에는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자금을, 민간의료기관에는 농특용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개방병원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5월부터는 본격 가동할 방침임.

- 또한 개방병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의료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일부제도를 내년 말까지 개선한다고 밝힘.

- 개방병원 운영이 보험재정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절감효과를 분석하여 적정수가항목을

신설하거나 일부항목의 가산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수가를 보완하여 2002년부터 적용할 방침임.

- 또한 개방병원을 활용한 진료비중 보험급여비를 개방병원과 진료를 실시한 개원의가 각각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 한편, 현행 의료법상 종합병원은 9개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하여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된 전문의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으나, 9개 필수진료과목(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 중 일부과목을 병원측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이들 필수진료과목에만 전속된 전문의를 1인 이상 두도록 하고 기타 진료과목은 전속 전문의 대신 계약에 의한 개원 전문의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개원의가 개방병원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법제화하고, 개방병원에 대해서는 광고가 허용되도록 의료법령을 개정함.
- 보건복지부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개방병원이 보편화되어 있다면서 환자는 물론 개원의와 병원측에 모두 이익이 되는 점이 있다고 밝힘. 환자는 동일한 의사로부터 신속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개원의는 개원시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부담이 없어지고 자신의 전문 분야를 지속적으로 진료하면서 단골환자 확보가 가능하고 개방병원은 남아도는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수입을 높이면서 다양한 전문의를 참여시킴으로 진료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됨.
- 개방병원이 일반화되면 의료기관의 과잉·중복투자를 막아 국민의료비가 절감되고, 1·2차 의료기관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하고 있음.

농어촌지역 한방건강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난해 병역법이 개정되어 2002년부터는 전국 농어촌지역 보건소에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을 활용하여 한방건강프로그램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한방건강프로그램

램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우선 중풍 예방법, 기공체조, 금연침 등을 교육·보급할 예정이다. 한방건강프로그램이 보급되면 노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 한방건강프로그램 내용 예시

- 중풍예방프로그램 : 중풍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을 교육하고, 계절에 따른 한의학적 양생법을 교육하고 실습함. 또한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기공·안마요법을 교육하고 실습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중풍예방법을 실천하게 함.
- 기공체조프로그램 : 도인법과 보건공을 중심으로 기공이 실제 지역사회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
- 사상체질프로그램 : 사상체질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체질에 따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잘 조절하여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함.
- 금연클리닉 : 금연침 시술을 통한 금연클리닉을 개설함으로써 지역사회 흡연율을 감소시킴.
- 산전·산후관리프로그램 : 산전·산후조리에 대한 민간요법은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상식이지만, 잘못 알려지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 존재한다. 한방 산전·산후상식교실의 목적은 이러한 상식들을 교정하고,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한방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음.
- 한방육아프로그램 : 한방육아교실의 목적은 민간상식에 대한 교정, 한의학적인 육아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한방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는 데 있음.
- 생활한방프로그램 : 다양한 민간요법들을 한의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임.